

“도심 빈집 정비, 실효적 대책 절실”

전윤미 시의원,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예산심사서
최명권 시의원, “특화거리 등 유지관리 부실”
최서연 시의원, “계속되는 운영비 증가 방관할 것인가”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은 11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극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심 중심지 이동, 재건축·재개발 지연, 강제 철거의 어려움 등으로 2022년 12월 현재 2,969호의 도심 빈집이 있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도심 내 빈집 정비 및 매입을 통해 공용주차장과 경로당, 기타 편의시설 등 주거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로 제공하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10월 20일 기준 사업 예산 집행률은 빈집 정비사업 38%,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사업 59%에 그치고 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려는 사업들이 쉽게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집주인과 수요자를 이어주는 빈집 플랫폼 운영 사업 예산 집행률은 0.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면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가 슬럼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며 “빈집 관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은 광역도시기반조성사업과 도시정비과를 상대로 특화거리, 특정광장 유지관리 부실하다. 시는 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인구 유입 방안을 위한 특화거리 13개소, 특정광장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공간만 조성되고 있지 운영 및 활성화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주 시내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야간 경



전윤미 의원



최명권 의원



최서연 의원

2023년 현재 전주시는 빈집 증가, 정주인구 감소, 도시 슬럼화 등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2,346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거점 공간 15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을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조명의 절반 이상이 꺼져 있으며, 청소년 거리 경관조형물 역시 조명이 켜지지 않아 본래의 기능은 잃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특화 거리와 특정 광장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다 보니 관리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특화 거리와 특정 광장에 매년 3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 대해 “예산의 대부분이 전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태양광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 금암)은 도시 정비과를 대상으로 계속되는 운영비 증가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조성하였으나, 정작 사업이 종료된 이후 행정이 활용하는 곳을 제외하면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시재생 거점공간에 대한 운영 및 관리비가 2022년 6,600만원, 2023년 8,000만원에서 2024년에는 1억 8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한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꾸준히 관리와 운영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의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하고 현재 운영 및 관리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해서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예산이 없도록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11일 '2023년 하반기 시내·마을버스 친절·안전기사'로 선정된 박종인 씨(성진여객) 등 12명의 운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 선정

전주시, 12명에 표창장 전달·노고 격려

전주시가 평소 안전하고 친절한 운행으로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선 시내·마을버스 운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우범기 시장은 11일 '2023년 하반기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로 선정된 박종인 씨(성진여객) 등 12명의 운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3년 하반기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는 △박종인 △정길용(이상 성진여객) △염금섭 △황준환(이상 전일여객) △김운주 △김정훈 △박성순 △이경엽 △이동호 △최병윤(이상 제일여객) 등 10명이 받았으며, 마을버스 친절·안전기사는 △박감천 △노진수(이상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2명이 선정됐다.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링단 평가와 전주시 누리집

및 콜센터 등 시민 제보를 통해 1차 추천을 받았으며, 이후 친절·안전기사 선정위원회 심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결정됐다.

또한 마을버스 친절·안전기사의 경우 지난 11월 차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시민의 생명을 살린 공로를 인정해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운전원들에게 친절기사 명찰과 엠블럼 패치를 전달했으며, 표창 수상일로부터 5년간 전주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50%의 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또 수상자들은 소속 버스회사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최고의 친절·안전기사 왕중왕으로는 김영덕 씨(호남고속)를 선정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불교대학, '엄마의 밥상' 성금 300만원 기탁

(사)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지난 9일 '대학인의 밤' 행사를 기념해 전주시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성금 300만 원을 후원했다.

전북불교대학은 지난 2021년부터 전주시 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아침밥을 지원하는 '엄마의 밥상' 사업을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시 아동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백준기 (사)부처님세상 이사장은 “전주시 엄마의 밥상 후원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나눔에 동참해 주신 불교대학 학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더 챙기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엄마의 밥상 사업을 위해 성금을 기부해 준 전북불교대학에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맞손'

전주시-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조성·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전주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와 한국관광공사는 11일 서울 포포인츠 바이 셰라톤 구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관계자, 전주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열린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

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는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서 전주수목원과 팔복예술공장, 한벽문화관이 선정돼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3회 선정된 지자체가 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한국관광공사는 △무장애 열린관광 누리집(홈페이지) 정보교류 △이동취약계층 관광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관광분야 종사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관광공사와 교류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주시가 관광 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만족하는 관광도시,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지속가능한 무장애 관광도시로 나아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와 한국관광공사는 11일 서울 포포인츠 바이 셰라톤 구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열린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욱기 기자

민·관·학 협력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나서

연탄을 사용하는 전주지역 에너지소외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민·관·학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지역탄소기업인 (주)데움, 태양광 설치 기업인 가온E&C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연탄 사용 노인가구 3곳을 대상으로 기존 연탄 난방을 탄소난방시스템으로 전환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활동을 위해 전주대학교는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모여 해당 가구의 생활폐기물을 청소하고, 탄소난방 설치를 위한 집기류 운반을 도왔다.

전북 전주형일자리 참여 탄소기업인 (주)데움도 재료를 후원한 데 이어 안전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탄소난방 시



스템 설치에 손을 거들었다. 또, 탄소난방 사용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전기세 절감을 위해 지역의 태양광 설치 기업인 가온E&C도 태양광 설치를 후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활동은 전주대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로 선정돼 운영된 '화석연료제로 따뜻한 방 프로젝트'의 연장으로 이어진 활동이다. /김욱기 기자



창립 제48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 신·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18:00 장소 | 순창장애인체육관

모시는 글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하나되어 미래로 더 높이 도약하는 순창청년회의소에 평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순창청년회의소 창립 제48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과 아울러 신·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임회장
이 시 열


취임회장
이 진 선


상임부회장
신 희 성


내무부회장
오 유 준


외무부회장
김 우 재


감사
황 영 하


감사
김 도 민

순창청년회의소 회장 **이 시 열**
2024년 회장 **이 진 선**

전역회원
선택수
서연수

